

韓國經濟, 危機인가

姜 哲 圭

〈서울市立大學校教授·經博〉

1. 위기론자의 논거

최근 들어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주장을 펴는 위기론자가 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다음 네가지 안에 포함된다.

첫째, 금년 들어 수출이 크게 둔화되어 경기가 주춤한데다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에 연평균 28.3%의 신장률을 보였던 수출이 금년 1/4 분기중 9.3%를 기록하여 지난해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수출단가 상승분을 뺀 물량기준으로 보면 작년 1/4 분기에 비하여 오히려 5% 정도가 감소했다.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한국경제로서는 이 같은 급격한 수출둔화로 도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둘째, 논거는 노사분규와 그에 따른 임금상승에서 찾는다. 최근까지 노사분규발생건수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약 17%에 이르렀고 1/4 분기중 생산차질이 1조 6천억원, 수출차질이 6억 4천 2백만 달러나 된다는 것이다. 노사분규와 임금인상 문제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생산과 수출둔화 이상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여 노동자들에 의한 체제변혁의 위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측도 있다.

셋째, 대외적으로 특히 대미통상마찰이 갈수

록 심화되어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운신의 폭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外患에 의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넷째, 부동산투기, 증권투기 등의 비생산적 자원활용으로 경제가 불건전하게 전개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득계층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견되고 있다.

이상의 논거들은 모두 한국경제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들이 함께 발생하여 또는 그중 어느것이 치명적이어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 것이 위기론자들의 시각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시각이 옳은 것인가?

2. 지금의 한국경제를 보는 올바른 시각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위기론적 시각은 과장되어 있다고 본다. 위기론을 주장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들이 나무를 보고 숲을 못보는 혹은 안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출둔화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감소론부터 살펴보자.

우선 이 논거의 가장 큰 잘못은 한국경제의 발전을 수출의 변화에 일치시킨다는데 있다. 수출만이 살 길ियो, 무역차액만이 國富를 증가시킨

다고 믿는 중상주의적 사고에 파묻혀 있다는 점이다. 총수요에는 국산품에 대한 외국인의 수요인 수출도 있지만 내국인의 소비가 있고 국내의 투자수요가 있다. 수출을 위한 투자도 있지만 내수를 위한 투자도 있다. 「국민생활의 고른 향상」이라고 하는 경제발전의 본래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중요하다. 수입을 위하여 수출이 필요할 뿐인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내수는 어떠한가? 만약 내수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다면 확실히 한국경제 전체는 경기면에서 위기는 아니라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답은 그렇지 않다. 내수는 지금 예상외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소비증가는 86~87년에 7.3~7.7%선에 머물고 있었으나 88년중에 8.5%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는 주로 승용차, VTR, 컬러TV,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 이러한 추세가 금년 1/4분기중에도 계속되고 있다. 금년 1/4분기중 승용차와 냉장고의 출고량이 각각 전년동기비 43%씩 증가하였고 컬러TV도 28%가 증가하였다. 소비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내수용 소비재 출하액도 전년동기비 21%나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최근 수년내의 소득수준의 빠른 향상에 기인한다. 밀턴 프리드먼(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 의하면 경기가 좋아 소비자의 소득이 크게 향상되면 예상되는 「항상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항상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자들은 내구소비재를 「항상소득」의 일정 배수만큼(예컨대 항상소득의 2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예상외의 큰 폭으로 소득이 향상되는 시기에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년간 예상외로 호황을 만나 연평균 12% 이상으로 성장하였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노동자의 임금소득도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소득효과에 의한 소비증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소비만 증가하고 생산적 투자가 이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물가를 상승시킬 뿐 국민생활의 향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건축허가면적이 전년비 27.9% 증가하였고 국내기계수주액도 전년비 28.4%나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해 1/4분기의 건축허가면적 29.4%에 비하여 크게 손색이 없는 수준이고 기계수주액 -14.5%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투자수요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내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수입증가의 내용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지난 1/4분기중 국내 수입증가율은 20.5%를 기록하였다. 이중 수출용 수입은 수출둔화를 반영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불과 2.5% 증가에 그쳐 33억달러를 기록한 반면 내수용 수입은 내수호조를 반영하여 31.4%나 증가한 53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중 소비재는 8억3천만 달러로 3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국내소비와 투자 즉 내수는 건실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출둔화를 들어 한국경제 총수요의 모든 부문이 침체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의도된 거짓말이거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수출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들어 수출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있고 아직 크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수출이 둔화되

무역증가율추이

(單位: %, 백만달러)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통 관)
	1988	1989. 1/4	1988	1989. 1/4	
한국	28.4	9.3	26.3	20.5	90
일본	15.6	13.3	25.3	14.8	17,225
대만	13.0	8.7	42.0	-1.7	2,751

資料: KIET, 동향분석실

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지난 해 급속한 환율의 평가절상의 효과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금년도의 선진국 경기가 부진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환율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선진국 경기 둔화는 일본이나 대만에도 같은 효과를 나타낼 것인데 일본이나 대만의 수출증가율 둔화폭은 지난 해에 비해 불과 2~5% 포인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난 해 이들 3국간 환율 변동의 격차는 매우 크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 원화는 지난 해 15.8% 절상하였고 대만 원화는 1.3% 절상에 그쳤다. 일본 엔화는 오히려 3.2%나 평가절하되었다. 그 결과가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년 1/4분기 수출증가율 둔화폭 차이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과 대만은 전년 대비 금년 1/4분기의 수출둔화가 각각 2.3% 포인트와 4.3% 포인트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은 19.1% 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수입증가율의 둔화폭이 적은 것도 환율과 내수폭발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수출둔화가 한국경제의 위기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국경제는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구조를 전환해가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줄이고 자체내에서 경제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다음에 노사분규와 임금인상에 의한 위기설에 대하여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첫째, 임금의 급상승에 의한 경쟁력 저하 및 채산성 악화 둘째, 생산차질 및 품질저하 셋째, 기업인의 투자욕 상실 등이다.

임금상승이 실제로 경쟁력저하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는 산업마다 다르다. 노동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는 기업은 그 영향이 클 것이지만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에 대한 인건비 비중은 대략 15.5%로 계산된다. 만약 임금이 20% 상

승하였다면 매출액에 대해 3%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성 증가율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10%라면 이것을 공제한 10% 임금상승액이 대략 1.5%의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반면 환율이 수출단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만약 환율절상의 가격전가율이 50%라 하면 그것은 88년의 경우 8%의 수출단가 상승요인이 된다. 이에 비하면 임금상승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기술혁신을 더욱 빨리하면 그 영향은 더욱 적어진다.

다음에 태업, 파업 등으로 생산차질이나 품질저하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그것이 지속된다면 경기둔화, 수출둔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의 노사분규를 경험하여 알 수 있듯이 주요쟁점이 과거에 누적되었던 경영상, 인사상 부조리에 대한 쟁점이 많아 노사간의 해묵은 감정싸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근대적 노사관계의 정립과정에서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5월 이후 노동쟁의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투자욕 상실을 초래하고 있는 점은 부분적으로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지표가 말해주듯이 경제전체의 문제는 아니다. 더구나 생산적 투자가 소홀히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요인 예컨대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여타 고수익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노동쟁의를 언급할 때 생산차질,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효과만을 과장하여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정적 효과못지 않게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두가지만 들여보자.

첫째, 임금상승에 의한 所得效果이다. 임금상승은 노동자의 소득과 구매력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에 부응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킨다. 즉 소비와 투자, 내수증가를 촉진한

다. 한국경제는 이미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으로서는 비싸진 노동력 대신 기계를 사용하려는 이른바 要素代替를 추진하여 기업체질을 강화시킨다. 공장자동화, 사무자동화 등이 그러한 것이며 그 결과 기계수주액이 크게 늘어난다. 자동화 등 기계화는 결과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그만큼의 高賃金도 지탱할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노사분규와 임금상승의 부정적요인을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요인을 극대화시키면 국내산업의 체질 강화, 내수확대 그리고 기술향상에 의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좋은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도 현재의 한국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구조조정기라고 할 것이다.

밖으로부터 받고 있는 도전을 들어 위기로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과 EC로부터 가해지고 있는 통상압력은 ① 전통산업분야의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 ② 농산물 시장개방 ③ 서비스시장개방 ④ 지적소유권 보호 ⑤ 환율절상 요구 등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현안이 되고 있는 분야는 ②, ③, ⑤ 등이다. 이러한 통상마찰은 한국의 국제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86년 이후 계속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통상마찰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는 견해는 확실히 과장되어 있다. 물론 시장개방, 환율조정 등에 의하여 타격을 입는 기업 혹은 산업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한국경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 대부분의 산업이 도산하거나 쇠퇴하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위기에 빠질 만큼 취약하지는 않다. 이 부문에서도 마찰을 수습하는데 있어서 개방범위와 속도를 잘 조정하면 약이 될 수도 있다. 즉 대부분의 제조업 분야와 같이 국제경쟁력이 튼튼한 경우에는 개방을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상대가격을 인하시켜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어느 논거에 의하든 성급하게 위기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근대

적인 노사관계 확립으로 저임금, 저부가가치 생산위주에서 고임금, 고부가가치 상품생산의 단계로 이행하는 구조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다. 만약 이런 시기에 위기론을 강력히 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구조전환을 바라지 않는 세력 혹은 그것을 통하여 손해를 입는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

3. 당면과제와 대응방안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있지 않다 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지난 3년간에 비하여 경기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물가불안과 투기의 성행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수출둔화, 노사분규, 통상마찰보다도 훨씬 어려운 과제일지 모른다. 물가불안은 과도한 통화증가에 1차적으로 기인한다. 최근의 통화증발 압력은 국제수지 흑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소위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이 年 10조원에 가깝다. 이는 총통화증가가 억제선인 18%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해외부문의 통화증가가 인플레이 압력이 되고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총통화증가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 민간부문의 통화수요가 압박을 받는 건축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해외부문에서 발행된 통화가 생산적으로 즉 민간수요에 부응하도록 원활히 유통되지 않고 토지, 건물, 부동산투기나 때로는 증권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들 자금이 수출대기업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는 조장되고 내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내자원을 비생산적인 데로 집중시켜 생산, 고용, 소득증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시키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투기근절과 물가안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다른 한편으로 계속적인 기술혁신과 그를 통한 신기술, 신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